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어린 사무엘

성경: 사무엘상 3장 1-11절

Tag: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삼상3:1-11)

성경에는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전혀 없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도 매우 유명한 이야기다.

기도하는 사무엘에 관한 그림이 한 때 유명했다. (과거에는 이발소, 버스, 그냥 액자 사면 끼워주는 그림-영국 조수아 레이놀즈/렘브란트 풍/어린이 초상 보습처리 대가로 유명함.)

집집마다 어떤 기원을 담은 그림처럼 사용되기도 함. 뭔가 그림이 기도를 드러주는 느낌?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제사장 엘리는 늙었고, 아들들은 망나니라 전혀 쓸모 없는 자식들이었고, 다행히 그 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 역할을 하고 있던 셈.

전혀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제사장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금촛대의 불을 정리하고 분향단에 향을 태웠다. 저녁이 시작되면 또 회막에 들어가서 금촛대의 불을 붙이고 분향단에 향을 태웠다.

이때 사용하는 불은 저녁에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불을 사용해야 하고, 아침에는 금촛대의 불을 사용해야 한다.

아마 사무엘은 잠 잘 곳이 따로 있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잠을 청해야 했나보다.

혹자는 그가 아마도 레위인들이 자는 곳에서 잠을 잤을 것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금촛대를 정리하고 금촛대의 불을 이용해서 분향단의 향을 피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단은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셈이다. 영적으로 무척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는 돌이 지나면서 바로 성전에 바쳐졌다. 어찌 보면 매우 불행한 삶이고, 어찌 보면 매우 독특하고 신령한 삶이다.

다행히 사무엘은 자신의 처지를 매우 순전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였다. 위기를 예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사장의 위기는 곧 성전의 위기로,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적 위기인 셈이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셨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양육 받았다. 성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그는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악동이 되지 않았다.

그는 엘리 제사장을 마치 아버지와 같이 따랐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계시하고 싶지 않으셨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하고 싶으셨다. 하나님은 엘리를 민족의 지도자로 양육하고 싶으셨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훈련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진실하였고, 신실하였고, 성실하였고 철저히 겸손하며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 어머니 한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 그녀는 서러움이 많았고, 꿈도 많았고, 인정받는 여인이었으나 아들이 없었다.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큰 수치였다. 대적 브닌나는 아들들이

많았다. 아들도 없는 한나에게 남편의 선물이 많다는 것 때문에 한나는 브닌나의 질투 대상이 되었다.

한나는 이 모든 원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하였다. 그녀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약속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녀는 보통내기가 아니다. 하나님께라면 절대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녀는 엘리 제사장과의 약속도, 아들 사무엘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켰다.

그녀는 당시 좋지 않는 소문으로 위신이 추락한 엘리제사장에게도 예의를 지키며 깍듯 하였고, 그의 엉뚱한 영적 지도에도 도발하지 않았다.

신실한 어머니에게서 신실한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그 누구도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신 셈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닥쳤고, 사무엘은 당당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주셨고, 그가 한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돌파가 일어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자에게 계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면 힘이 생기고 사명감이 형성된다.

나라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

교회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

가정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자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되고, 그 자녀에게 계시가 임하시고, 사명감이 임한다.

영국의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웅장했던 예배당이 팔리고 있다.

미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예배당도 이단들에게 팔리고 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린 사무엘을 찾고 계신다.

이 시대의 한나를 찾고 계신다.

엘리도 기도하지 않고, 그 아들들은 망나지 짓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자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소망이 있고, 돌파가 있다.

한나가 그랬다.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남의 책임까지 떠 맡으며 성실하게 살았다. 기도의 향불을 끄지 말고, 예배의 촛대를 끄지 말고, 헌신의 예물을 잊지 말고, 말씀의 진설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끌어 당기는 것이다.

아멘.

21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27:21)

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출 27:20)

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출30:7)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